

국보 57호인 전남 화순군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도굴미수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도굴로 인한 부도 훼손이 잇달아, 도굴꾼들의 주요 표적이 석탑에서 부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13일 "지난 11일 탑의 지붕돌(옥개석)이 오른쪽으로 3분의 1가량 밀려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쌍봉사 철감선사탑을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 훼손 전



▶ 훼손 후

국보급 불교문화재 수난 잇달아

쌍봉사 철감선사탑 훼손

도굴 미수... 지붕돌 오른쪽으로 1/3 밀려나
작년엔 고달사지·연곡사 부도 파손

12일 현장조사 결과 도굴을 시도 하려고 지붕돌을 옮기다 사리공(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밑돌에 파놓은 구멍)이 안 보이자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그대로 방치하고도

주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밝혔다. 다행히 탑 자체에 손상은 입지 않았다. 철감선사탑은 탑 맨 위 장식인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도굴로 인한 부도 훼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보 4호인 고달사지 부도 상륜부(탑의 맨 위 장식)가 도굴로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재작년 3월엔 역시 국보인 연곡사 북부도

(54호)가 무너져 다시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재국학예연구관은 "탑이나 부도를 도굴하는 것은 속에 봉안된 사리함이나 불상, 불경 등의 유물을 훔쳐 한 밀천

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을 개장한 철감선사(798-868)의 부도(스님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돌탑)로 신라 경문왕 8년(868)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팔각원당형 양식에 조각 수법 또한 화려해 당시 조성된 부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날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상한 남자 5-6명이 11일 오전 승합차를 타고 짚에 왔었다는 사실 측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들을 찾는 수사에 나섰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공불련-서울시청불심회 '불협화음'

서울시청, '중앙부처 중심 공불련 운영 불만' 가입 거부

서울시청 불심회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자조직의 불화가 우려된다. 이 같은 양 단체간의 불화는 구청 등 단위 기관불자회 이탈 현상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서울시청 불심회의 공불련 가입 거부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청 불심회는 지난해 4월 공불련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기존 입

장을 철회했다. 서울시청 불심회의 입장 변화는 공불련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관 서울시청 불심회장은 "불심회는 개인의 신심을 돌우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공불련 가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한다"며 "내부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홍부 공불련 사무국장

은 "가입 여부의 결정은 서울시청 불심회의 선택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불심회를 이끄는 일부 회원들이 불자회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8개의 구청 불자회가 있으며, 이들 구청불자회는 정부조직법상 상위기관인 시청과 중앙부처 중심의 공불련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설 수 없어 공불련 전체의 활동 저하가 우려된다. 김철우 기자

이라크 침공반대·평화기원 법회

불교대책위, 20일엔 '사이버 평화의 등' 달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반전평화 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불교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한나라당 서상섭, 안영근 의원, 민주당 송영길, 김성호 의원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반전평화를 위해 이라크를 다녀온 것에 대해 각 정당에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다 해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며 비전투 요원 파병 역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익을 위해 전쟁에 협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대책위는 18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와 평화 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사이버 평화의 등 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가 이라크 전쟁에서 고통이 최소화되기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전쟁은 더 이상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승자에게 잠깐 동안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문제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사, 영·일어 자원봉사자 교육 28일~6월13일, 사찰예절·교리등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제10기 영어 일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28일~6월13일까지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열리는 이번 10기교육에는 한국불교의 역사, 사찰안내 기법, 사찰예절, 기본 교리교육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수강료 3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02) 732-5292 한편 서울시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문화재와 지역문화를 안내하는 '서울문화유산해설사(Hi Seoul Greeters)'를 모집한다. 서울시 관광과에서 26일까지 접수. 문의 023707-9455 김원우기자

북사찰 단청 지원 등 당부 평불협 11월 기념법회

조계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창립 11월 기념법회 및 200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정인악 이사장은 "북한 단청지원과 금강국수공장, 통일법당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소장 특별사면 청원

법장스님, "선고 효력 상실시켜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김태복소장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를 통해 청와대로 김태복소장의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불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상스님(조계종 교육부장)에 따르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청원서를

접수시켰다"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선고유예 공무원 강제퇴직은 위헌이라는 점, 오는 5월에는 계급정년으로 전역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면제하고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새만금 생명의 소리' 전국에 울려 퍼져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공동대표 수경)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새만금 생명의 소리' 행동을 시작했다. 수경스님 등 회원 30여명은 12일 서울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하유스님(안동 용수사)의 법고소리와 함께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캠페인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약한달간 지속된다. 사진=고영배 기자

목탁소리 **탁났한 스님 방한을 보며**

남동우 (취재1부 기자)

1995년에 이은 탁났한 스님의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온 나라가 들쭉이 들고 있다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한이 전부터 불교계 언론보다 먼저 일종의 '냄비'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수행이력 있는 스님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에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 하는 말도 들린다.

스님은 18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 포포인트 웨라톤 호텔에서 열리는 평화포럼, 20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기업인을 위한 조찬강연에 참석한다. 또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한 국노동교육원에서 3일간의 수행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동국대에서 강연한다. 그런데 19일 평화포럼과 20일 조찬강연이 호텔에서 열리는 것은 평소 스님의 청빈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강연(20만원+기부금)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일간의 수행(30만원), 동국대 강연(5만원은 대중과 함께 하는 '플럼블리지'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스님 방한에 맞춰 스님의 저술에 대한 선인세 성격의 로열티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명진 출판사측은 방한과 관련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이익금은 사회에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라 할지라도 스님과 관련한 상업적 관심이 불교 전체의 상업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조찬강연이 호텔에서 열리는 것은 평소 스님의 청빈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강연(20만원+기부금)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일간의 수행(30만원), 동국대 강연(5만원은 대중과 함께 하는 '플럼블리지'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스님 방한에 맞춰 스님의 저술에 대한 선인세 성격의 로열티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명진 출판사측은 방한과 관련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이익금은 사회에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라 할지라도 스님과 관련한 상업적 관심이 불교 전체의 상업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신개발 영가위패단

영가위패의 특징

-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단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과 불교 미술적 조화로 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이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 영구위패 및 우란 분절 또는 각종 행사에 사용됩니다.

인 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인 등

천연 옥가루를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절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크 기 - 5인치, 7인치, 9인치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정심원 하옵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求道の 길을 가시는 스님과 포교의 일선에서 衆生과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스님들께, 그 동안의 수행에 祝願 올립니다.

저희 正心院에서는 거기에 보답하고자 첨단 기술과 철저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영가단 영가위패와 인등, 그리고 천연옥으로 만든 옥불상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수많은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기여하는 正心院. 다시 부를 수 있는 正心院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正心院 임직원 일동 합장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心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전화 031-916-0310 핸드폰 011-724-0455